

『퀴어 코리아』 번역자 입장문(2023. 9.)

이 글의 목적은 『퀴어 코리아』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옮긴이들이 이 연구윤리 위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옮긴이의 글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 역시 거부당했음을 알리고, 연구 윤리 위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연대하여 퀴어-한국 연구의 윤리적 쟁점을 함께 고민하기 위함이다. 『퀴어 코리아』는 듀크대학교출판부에서 2020년에 영어로 출간되었고 2023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한국어판 출간 후 며칠 뒤, 한국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성소수자 인권 단체 중 하나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소속 활동가 남웅은 모두에게 공개된 운동단체 웹진에서 이 책에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그 피해자임을 밝혔다. 이 글은 한국 퀴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연구자 및 활동가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몇몇 자생적 대응 단체가 조직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런 단체 중 하나인 Queer Research Ethics Council(Twitter @QueerEthics_Kor)은 남웅의 고발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학계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를 촉구했다. 며칠 뒤 『퀴어 코리아』의 편집자인 토드 A. 헨리와 피고발자 티모시 깃즌은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웹사이트에 공론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퀴어 코리아』의 한국어 번역 작업은 영어판이 출간된 2020년 2월에 시작되었다. 책의 편집자인 토드 A. 헨리는 한국어판의 번역자를 찾고 있었고, 한국의 자생적 성소수자 및 퀴어 연구 공동체인 성소수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네트워크(이하 '성연넷')의 구성원들이 공동 번역을 맡게 되었다. 성연넷은 한국 성소수자 연구에 관심을 갖는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자에게 마련된 대안적 학술 공동체로 2019년 말에 조직되었으며 구성원들은 문학, 문화연구, 보건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여성학, 인류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과에 속해 있다. 퀴어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퀴어 코리아』에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저자들이 참여한 만큼 이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도 성연넷과 같이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필요했다. 서론을 포함하여 모두 11개의 챕터들 중 번역자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련 있거나 관심 주제를 다룬 원고를 선정했다. 이러한 번역 방식은 연구 윤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번역자들 사이의 논의와 대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각자 담당한 부분만을 번역하면서 이메일로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문제 상황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20년 여름에 시작된 작업은 2021년 봄까지 이어졌다. 초벌 번역 작업 이후 교차 검토를 통해 원고를 다듬고 번역어를 통일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퀴어 코리아』 한국어판은 2023년에 출간되었다. 자신이 맡은 챕터를 번역하고 다듬는 데 쓰인 시간이 다를지라도 번역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2021년 여름 무렵 대다수의 역자는 이미 완성된 번역 원고를 손에 쥐고 있었다. 『퀴어 코리아』 한국어판이 정식으로 출간되는 데 번역 외에도 약 2년여의 시간이 더 소요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티모시 깃즌이 작성하고 1판의 9장으로 수록되었던 「트라우마의 파문: 한국 군대의 퀴어 신체와 폭력의 시간성」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소식을 번역 과정

중에 접하고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어판에는 서론을 포함하여 모두 10개의 장이 수록되어 있다. 영어판 『퀴어 코리아』가 개정되면서 초판의 9장 「트라우마의 파문」이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이 밝혀져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9장은 티모시 깃즌(Timothy Gitzen)의 박사논문 “퀴어 위협: 국가 안보, 섹슈얼리티, 한국의 사회운동 The Queer Threat: National Security, Sexuality, and Activism in South Korea”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깃즌의 박사논문과 「트라우마의 파문」은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불안과 트라우마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었고 더 큰 윤리적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깃즌의 연구가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깃즌의 논문이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실제와 다르게 적기도 했으며, 트라우마 경험과 같이 공개적으로 발설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익명화하지 않고 실명으로 언급한 것을 발견했다. 문제제기인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종전 9장의 저자 티모시 깃즌, 편집자 토드 A. 헨리, 출판사인 듀크대학교출판부 및 깃즌의 박사학위 수여기관인 미네소타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이 사실을 제보했지만 적절한 조치와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깃즌은 처음에는 9장의 철회를 약속했으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철회 대신 논문 수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으며, 이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고 공개하라는 문제제기인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21년 5월에 이르러 『퀴어 코리아』에서 깃즌의 챕터가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깃즌의 연구 윤리 위반 사실이 가시화되지도, 공개적인 사과가 게시되지도 않았다.

서로 다른 번역자가 각자 하나의 챕터를 맡아 번역했기에 번역자들 중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깃즌의 글의 번역자였다. 한국의 성소수자 활동과 연구의 장은 여전히 넓지 않음을 고려해 보라. 그(they)는 자신이 맡은 챕터에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한국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연구 주제 자체가 민감하고 내밀한 개인 정보를 건드리고 있는 만큼, 당연히 연구 참여 및 인용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했다. 다만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영어로 이미 출간된 챕터라고 하더라도, 해당 챕터가 한국에 번역되면서 피해자들(당시에 그가 생각하기로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과 가까운 이들이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을 수 있기에 그들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명확했다.

2020년 11월 그는 깃즌의 챕터에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깃즌이 그에게 피해자 중 한 명의 이름을 번역본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을 때, 또다른 피해자인 A의 말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는 A에게 한국어판 인용에 대한 확인을, 깃즌에게 다른 연구 참여자의 인용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며칠 뒤, A는 깃즌이 이미 출판된 자신의 책을 인용할 때 사실관계가 틀렸음을 알렸다. 9장 번역자는 이 일을 계기로 깃즌이 연구 참여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사이 깃즌은 수정이 필요한 인용이 더 많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본을 곧 전달해 줄 것이라고 알려 왔다.

그러나 수정된 원고는 전달되지 않았다. 9장 번역자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몇 차례 잇따라 논의를 진행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 심지어 기존의 챕터가 제외된 2판이 출간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제3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2021년 7월, 이 사건에 대한 논의로부터 소외되고 있었던 번역자들은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이후로 ‘피해자 B’)으로부터 『퀴어 코리아』에 윤리적 문제가 있음을 고발하는 편지를 받았다. B는 자신이 기존의 연구 윤리 문제를 토드 헨리와 듀크대출판부에 2020년 12월에 제기했음에도 이 책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번역이 시작된 후 이때까지 번역자들은 기존은 물론, 편집자 토드 헨리, 듀크대출판부, 한국어판 출판사인 산처럼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번역자들은 여전히 억압되어 있는 한국의 퀴어 연구 및 사회운동의 장에 연관된 연구활동가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2021년 여름부터 2022년 봄 사이에 번역자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2022년 2월, 9장이 빠진 수정판이 미국에서 재출간되었다. 그러나 수정판 어디에도 왜 하나의 챕터가 빠지게 되었는지 언급하는 부분은 없었다. 누군가는 이러한 침묵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침묵보다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알리기를 바랐다. 2022년 봄, 번역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동료이자 친구이기도 한 피해자들 중 일부를 직접 만나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기도 했다. 번역자들은 『퀴어 코리아』의 연구 윤리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웁긴이의 글”을 심기를 바랐고 초안을 작성하여 출판사에 보냈지만, 출판사는 웁긴이의 글에 피해 당사자를 거론하게 되면 이것이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이나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듀크대 출판부에서 수정한 2판에 해당 챕터가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는 것이 출판사의 입장이었다. 더불어 출판사는 번역자들이 작성한 웁긴이의 글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원저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 또한 전달해왔다. 즉, 출판사와의 계약 관계로 인해 도서 출판을 취소하거나 사안을 도서 내에서 언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사이 번역자들은 편집자 토드 헨리로부터 『퀴어 코리아』에 연구 윤리 문제가 있었음을 알리는 편지를 출판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것이 번역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실상 유일한 설명이다. 미국판과 달리, 2023년 2월에 출간된 『퀴어 코리아』 한국어판에는 1판에 연구 윤리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토드 헨리가 작성한 “한국어판 서문”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지만,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알려지고 처리되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유감의 표시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번역자들은 연구 윤리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후 “웁긴이의 글”을 통해 유감 표명과 이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한국어판 출판을 철회하는 것까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편집자와 원 저자들, 한국 출판사가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옮긴이의 글을 신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원서의 글을 옮겨 신는 번역자의 역할과 개입 정도에 한계를 체감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출판사-저자-편집자 사이의 논의 과정에서 번역자의 위치는 다소 배제되어 있었고, 일부 번역자들은 법적인 문제나 피해 보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이는 번역자 대부분에 해당하는 신진 연구자들의 불안정한 지위와도 관련될 것이다. 그 과정의 끝에 남은 것은 무력감과 소진이었다. 번역자들은 편집자 토드 헨리와 피고발자 티모시 깃즌이 피해자들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대응이 그들의 진술처럼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번역자들과 소통했던 모든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공론화한 남웅 모두 소외와 소통 불가능성에 마주했음을 토로했다. 이 글은 그들과 다른, 그러나 인접한 차원에서 소외와 소통의 부재를 경험한 이들로서 그들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지길 바라는 역자들에 의해 쓰였다.

2023년 9월